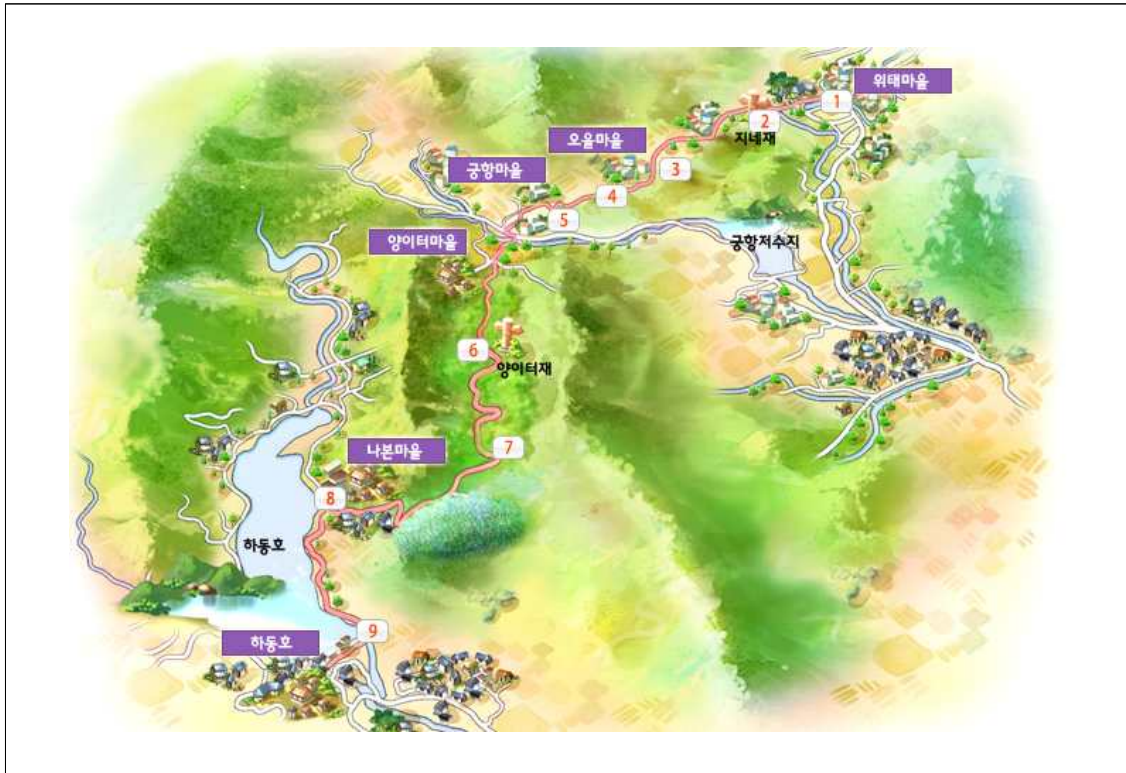


# 위태-하동호 구간

## ■ 코스 지도

낙남정맥이 관통하고 신화와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는 길



##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구간소개		
2	위태마을	위태마을의 유래	역사/민속자료
3	지네재	삶의 길 / 나무 이야기	설화
4	백궁선원	남명과 오대사지 수정결사	설화/민속자료
5	오대주산길	오대주산	설화
6	공항마을	공항마을 유래와 오대산	민속자료
7	양이터재	낙남정맥이 지나는 재	생태
8	대나무 숲	대숲이야기	민속자료
9	나본마을	나본마을 범바위 설화	민속자료
10	하동호	하동댐의 역사와 하동호	역사

## 1. 구간 소개

위태마을과 하동호, 하동호와 위태마을 잇는 길.

고개와 고개사이에 자그마한 산촌마을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 길에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지리산의 남쪽 하동의 5개 산촌마을들을 거치면서,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발견하고, 오대사와 남명 조식 선생을 만나게 된다.

푸르른 대나무 숲 사이를 거닐다 보면 어느새 드넓은 호수를 만나 감상에 젖기도 한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는 산길을 오르다보면 백두대간의 한줄기인 낙남정맥을 만나는 고개에서 잠시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자, 다시 등산화의 끈을 고쳐 매고 길을 나선다

## 2. 위태 마을

커다란 당산나무가 마을을 굽어본다. 마을의 구석구석까지 살펴보려는 듯 길게 뻗어 있는 줄기가 고풍스러워 보인다. 풋말엔 상수리나무 당산이라고 쓰여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꿀밤나무 당산이라 부른다.

당산나무 앞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평화로운 위태마을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상촌(上村)마을 즉 윗마을이라는 뜻에서 이름지어진 위태마을.

남원이나 구례, 산청 등 다른 시도의 둘레길과 비교해보면 이곳 하동의 둘레길은 무척이나 조용하다. 길 주변의 마을들도 그 규모가 작고, 살고 있는 가구 수도 적어 보인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둘레길보다, 상촌마을의 소박함이 더 온전하게 느껴진다.

이렇듯 마을이 한 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한 꿀밤나무는 이곳 위태마을의 할아버지 당산인데, 매년 이곳에서 마을 당산제를 지낸다. 마을 주민들은 이 당산나무를 신성하게 여기고, 나뭇잎 하나 조차 조심스럽게 다룬다. 당산나무를 함부로 다뤘다가 큰 화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여러 농촌 마을에서 나타나는데, 이곳 위태마을 당산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옆가지를 좀 잘랐는데 밤에 할아버지가 나타났데요. 대문밖으로 문을 차고 들어오면서 그런 말 하시더라 ‘니 3대를 어찌한다. 니 자손이 어떻게 된다’ 하면서 아무튼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똑같이 이틀 하시더라. 그 나무를 잘랐던 아저씨 집에 꿈에 나와서.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래 가지고 어디가서 물어봤다나? 물어보고 난께 그 나무의 할아버지래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기라 그 나무 잘랐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이 (나무에게) 벌었어. 그러구나서 괜찮더라. 안 벌었으면 그 집 절단 났어.”*

자신의 발에 그늘이 진다고 당산 나뭇가지를 잘랐다가 큰 화를 입을 뻔한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인자하게만 보였던 당산나무가 조금은 무서워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산나무를 신성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마을 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전통이었을 것이다. 오늘도 마을어귀에 서서 조용히 마을을 지켜보고 있는 할아버지 당산나무에 머리를 숙여본다.

### 3. 지네재

지네처럼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 이곳 지네재에 오른다. 쉽지만은 않은 산길이지만, 그럴수록 숲길의 정취를 느끼며 천천히 걷는다. 하지만 조금씩 차오르는 숨은 어쩔 수 없기에, 잠시 이곳 지네재에 걸터 앉아본다.

위태마을에서 지네재로 이어지는 산길에는, 경사면에 돌담을 쌓아 계단식으로 만든 다랭이 논 의 흔적이나, 민가의 터로 추정되는 공터가 여럿 있다.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을씨년스런 느낌마저 주지만, 이곳에 터를 잡고 살던 옛사람들의 고된 삶의 흔적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곳에 살던 옛사람들이 그 흔적만 남긴 채 사라져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생활고 때문일까? 아니면 전쟁 때문? 어쨌든 이렇게 험한 산 중턱에 까지 올라와 터를 잡고 삶을 일구었던 옛사람들의 흔적에서 안타까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낀다.

옛사람들은 이제 역사의 뒤켠으로 사라지고, 인적 드문 산길엔 소나무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옛사람들의 고단했던 삶 못지않게, 이 조용한 숲에도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그렇기에 더 치열하고 험난한 경쟁.

흔히들 소나무 숲을 정갈하게만 생각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내막엔 소나무의 이기적 속성이 자리한다. 소나무 뿌리엔 독성이 있어서 주변엔 다른 나무가 얼씬도 못하는데, 더군다나 바닥을 뒤덮는 폭신한 솔잎은 다른 나무의 씨앗이 들어오는 걸 막아버린다.

결국 소나무 숲에는 다른 나무가 들어서기 힘들어 소나무만 빼곡한 숲이 형성된다.

하지만 이런 환경을 뚫고 참나무들이 한 그루 두 그루씩 소나무 숲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면 소나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줄기를 버리고 위로만 자라기 시작한다.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일조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소량의 햇볕이라도 자신들이 흡수하여 참나무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참나무들도 이에 질세라 끊임없이 가지를 위로 뻗는다. 숲을 이루는 나무들이 풍성한 줄기를 갖지 못하고 위로만 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로만, 오로지 위로만 향하기 때문에 점점 아름답리 나무를 보는 것이 힘들어진다.

인간의 개발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이곳 지리산에 소리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 4. 백궁 선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문과 ‘CCTV 녹화중’이라는 단호한 문구가 먼저 눈에 띈다.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냉대하는 것 같아 다소 섭섭하게도 보이지만, 백궁선원은 명상을 중요시하는 국선도 수련장이니 이해하고 조용히 지나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슴 한켠 못내 서운함과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이곳이 세계국선도연맹에서 운영하는 국선도 수련장이기 이전에, 그 옛날 오대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고려중기 ‘점차 세속화되어가는 불교에 대해 수행과 정진을 통해 내부로부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혁신 운동’인 ‘결사’가 몇몇 뜻있는 승려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곳 오대사에도 진역대사에 의해 ‘수정사(水精社)’사라는 수행 정진 단체가 결성된 것이다.

한때 밥을 지을 때면 쌀뜨물이 십리나 흘렀다고 전해질 정도로 굉장한 규모를 자랑하던 고찰이었다. 또한 퇴계 이황선생, 일두 정여창 선생,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유학자였던 남명 조식 선생 등 당대 지리산을 유람하는 선비들이 들렀던 사찰로도 유명했다.

특히 남명 조식선생은 오대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어 그의 말년에 자주 찾았던 절이기도 하다.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오대사를 상상하며, 남명 조식 선생이 남긴 ‘증오대사승(贈五臺寺僧)’, 즉 ‘오대사 스님에게 주는 시’를 읊어본다.

*산 아래 외로운 마을 풀 덮인 문에*

*날이 막 어두워질 때 스님이 찾아 왔구나*

*시름겨운 마음 이야기하고 나서 잠 못 이루는데*

*달빛은 앞 시내에 가득하고 밤은 이속했도다*

남명 조식 선생은 그의 나이 예순 하나에 천왕봉과 가까운 곳인 지금의 산청 시천면, 덕산이라고 부르는 곳에 ‘산천재’라는 집을 짓고 기거하기 시작한다. 산천재에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이곳 오대사에 이르는 데, 오대사의 스님들과 밤늦도록 시름겨운 마음이야기를 할 정도로, 남명 선생은 오대사를 자주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항상 천왕봉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자신의 사상을 닦고자 했던 남명 선생, 그는 이곳 오대사에 올라와 어떤 생각과 이야기에 잠 못 이루었을까.

*‘물을 보고 산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았다.’*

남명 선생이 남긴 지리산 유람록인 <유두유록>의 마지막에 있는 이 문구를 되새기며 다시 돌레길로 발걸음을 옮긴다.

## 5. 오대주산길

오을마을에서 주산 방향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산길 끝에 이르면, 뒤로는 주산을, 앞으로는 궁항 저수지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공터가 있다. 험한 산길에 지친 발을 쉬며 주산과 궁항 저수지를 바라본다.

뒤로 보이는 주산은 하동의 청암면과 산청의 시천면의 경계 지점에 있는 산으로 오대산(主山, 五臺山)이라고도 한다. 산 아래의 오대사 절터에서 보면, 다섯 봉우리가 별려 있는데 그 중에서 주된 산이라고 하여 주산(主山), 혹은 오대주산이라고 부른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청암산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둘레길에서 벗어나 주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주산의 정상에 서면 천왕봉, 삼신봉, 영신봉 등 지리산의 주요 봉우리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속하지 않기에 사시사철 출입이 자유롭고, 이 때문에 천왕봉을 오르지 못하는 등산객들에게 아쉬움을 달래주는 산이기도 하다

산세로 보자면 주산은 품이 넓은 산인데, 남쪽은 하동군 청암면으로 청학동이 누워있고 북쪽은 산청군 시천면으로 반천계곡이 들어서 있다. 청학동과 반천계곡은 산 깊고 물 좋은 청정골짜기로 고운 최치원 선생, 남명 조식 선생 등 예로부터 덕 높은 인물들이 많이 찾던 곳이다.

마음 같아서는 주산에 올라 천왕봉을 가까이 보고, 내친김에 청학동과 반천계곡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주산의 중턱을 에둘러 돌아가는 둘레길을 걸으며 그 아쉬움을 잊어본다.

## 6. 궁항마을

오랜만에 만난 2차선 도로가 반갑기까지 하다.

도시에서는 지겹도록 밟고 사는 아스팔트지만, 산길만 계속 걷다가 만나는 이 길이 새롭게 느껴진다. 둘레길을 걷는 재미 중 하나도 이처럼 다양한 길을 만나며 느끼는 감회가 아닐까 한다.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2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냇가 쪽 마을을 음지말, 주산 쪽의 마을을 양지말이라고 부르고, 도로를 따라 안쪽으로 올라가면 안몰이라는 마을이 있다.

음지말과 양지말, 안몰, 그리고 양이터재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양이터마을과 지금 서 있는 궁항마을은 이처럼 자그마한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이루어진 아기자기한 마을이다.

궁항이라는 마을 이름은 지형이 활목, 즉 활처럼 휘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하는데, 안몰 앞에 '활촉산'이라는 지명이 있어 이를 더욱 뒷받침해준다. 이와 더불어 청암면 일대의 마을 지명엔 장군과 관련된 지명이 많은데, 중이리의 금남마을은 칼을 뜻하는 '검남'에서 유래하며 '칼남재'라고도 부른다. 또한 상이리의 '무군터 마을'은 지형이 장군이 날 곳이라 하여 불리어진 이름이다.

궁항과 활촉산, 그리고 칼남재와 무군터. 산촌의 작은 마을들에 어울리지 않는, 어찌 보면 전쟁과 관련된 인상마저 주는 마을 이름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 이 같은 지명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풍수설과 아울러 외부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이곳 옛사람들의 바람이 담긴 마을 이름이 아닐까 한다. '양이터마을' 역시 임진왜란 때 양씨와 이씨 집안들이 피난하여 살았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이 부근의 마을들과 전쟁의 역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된다. 옛사람들이 이곳 오지의 산촌까지 올라와 마을을 형성했다는 건, 나라의 전란을 피하기 위해서 였을 것이다. 그래서 장군의 기운을 마을 이름 속에 불어 넣으면서 외부의 난리를 막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

옛사람들의 고된 삶의 역사를 이곳 궁항마을에서 다시금 생각해본다.

## 7. 양이터재

그리 가파르게 보이진 않았지만 역시 고개는 고개인가 보다.

나무벤치에 털썩 몸을 맡긴다.

“은근히 힘들죠? 지리산 종주꾼들도 이 곳에서 잠시 쉬어 가곤 합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느라 주변을 살필 겨를도 없는 내게 등산객 한분이 미소를 지으시며 물병을 건네신다.

“이 곳 양이터재는 둘레길이 되기 이전부터 낙남정맥이 지나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혹시 ‘정맥’이 뭔지 아세요?”

흐르는 땀을 닦으며 연신 물만 들이키고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계속 말을 이으신다.

“옛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산줄기기를 한 개의 대간과 한 개의 정간 그리고 13개의 정맥으로 구분했습니다. 백두산으로부터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과 그를 중심을 뺀 13개의 정맥들이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대간과 정맥을 표시한 지도를 펼쳐보이시더니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신다.

“그 중에서도 이 곳 양이터재를 지나가는 낙남정맥은 지리산 영신봉에서 시작해서 경남 김해의 분성산까지 이어지죠. 감이 정확히 오지는 않죠? 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시면 좀 어려운 얘기일수도 있어요 (웃음) 음...이런 얘기는 좀 와 닿겠네요. 아까 설명한 낙남정맥은 빗물의 호적을 갈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빗물에도 호적이 있었나?

“이곳 양이터재에 비가 올 때 바람이 서쪽으로 불어서 내려가면 섬진강이 되고,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낙동강이 되는 거죠. 바람에 따라서 빗물에 호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웃음)

우리 내 옛 선인들은 백두대간과 13개의 정맥이 산줄기이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물길을 가르 는 분수령이 된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즉 산과 물의 흐름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 낙남정맥을 기준으로 섬진강과 낙동강으로 물길이 갈리듯, 이곳 산촌 마을도 양이터재를 기준으로 청암면의 상이리와 옥종면의 궁항리로 나뉘게 된다는 말도 덧붙이신다.

“별로 볼 것이 없는 고개라고 그냥 지나 칠 수도 있겠지만 지리산 자락의 고개와 계곡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야기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럼 아주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벼운 목례로 감사를 표하는 등 뒤로 양이터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걸음을 채촉한다



## 8. 대나무 숲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서 울창한 숲길을 걷는다. 청아하게 울리는 새소리가 귀를 간지럽힌다. 비록 경사가 심한 산길이지만 계곡물과 함께 걷는 이 길은 너무나 풍요롭다. 숲과 계곡의 맑은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천천히 걷는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무성한 숲 한가운데에서 별안간 푸르른 대숲을 만나게 된다. 처음엔 예상치 못한 대나무 숲에 어리둥절하지만, 곧 신세계에 빨려 들어가듯 대나무 숲속으로 들어간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숲의 소리와 대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햇볕에 몸을 맡기며 잠시 황홀경에 빠져본다. 마음 속 묵은 때가 모두 씻겨나가듯 온몸이 상쾌해진다.

하동의 둘레길을 걷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대나무 숲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곳의 대나무 숲처럼 우리를 놀라게 하는 곳은 흔치 않다.

예로부터 대나무는 우리나라 민가에서 많이 재배해왔다.

대나무의 뿌리는 우산대나 회초리를 만드는데 쓰이거나, 열을 내리는 약재로도 이용되었다. 대나무의 어린잎은 반찬으로 먹기도 했으며, 천식이나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대나무 줄기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부채나 소쿠리 등의 죽세공품을 만들어 살림의 밑천으로 삼았으며, 죽순과 죽염, 대나무 수액 등은 현재에도 각광 받는 건강 식품이다.

특히 남쪽 지방에선 병풍처럼 집을 둘러싼 대나무 숲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대나무 숲이 ‘호환’, 즉 민가로 내려오는 호랑이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역할도 했다는 것이다. 물론 전쟁 등 마을의 위험이 있을 때 죽창이나 활 등의 무기 재료로도 사용되었으니 그 활용도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어느 하나 버릴것이 없는 이 대나무는 60년에서 120년 사이에 단 한 번 꽃을 피운다. 꽃이 진 후엔 곧바로 말라 죽기 시작하는데, 결국 대나무는 일생에 단 한 번 꽃을 피우기 위해 지니고 있던 영양분을 모두 소모하는 셈이다.

울창한 숲 속 한가운데에 이렇듯 대나무 숲이 있으니, 어쩌면 그 옛날 이곳에도 민가가 있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왜 이런 깊은 산 속까지 올라와 살아야만 했고, 언제 어떤 이유로 그들이 사라졌는지는, 이곳에 서있는 대나무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가만히 눈을 감고 대숲이 스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 9. 나본마을

마을 앞 정자에서 지리산을 닮은 마을 어르신들을 만났다.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시는 이야기에 어느덧 가던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나본 마을의 상이초등학교 뒷산에 있는 큰 바위를 마을주민들은 ‘범바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온다.

지금의 하동호 자리인 청암천 냇가 하류에서 한 소년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맑던 하늘이 잿빛으로 어두워지며 난데없이 거대한 뱀 한 마리가 물을 차고 떠올라 꼬리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소년이 깜짝 놀라 그만 큰소리로 ‘뱀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외쳐 버렸더니 뱀은 힘이 없이 떨어져 죽고 그 자리에 가보니 범 즉, 호랑이의 형상을 한 바위로 변해 있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원래는 용이 될 뱀이었으나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승천했다가 하늘의 노여움을 받아 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러시면서 ‘범바위 주변에 장군이 날 터가 있으니 신성시해야한다’는 말도 함께 전해 온다.

어르신들의 범바위 얘기는 끝이 날줄을 모른다

이 일대가 장군대좌(將軍大座) 즉 ‘장군이 날 큰 자리’라고 하시면서 일대의 지명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다.

무군터, 노적봉, 말머리산, 구시골, 도래들, 깃대봉, 가마소, 칼남재, 활목이 등 외우기도 힘든 지명들을 열거하시면서 근래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주신다.

1900년대 초 농경지 정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에 마을의 말머리산에 농경지에 댄 물 공급을 위해 수로공사를 하였을 때의 일이다.

*(산중턱 공사현장. 드릴, 망치 등)*

*인부 : 소장님, 여기 좀 와보세요*

*소장 : 왜? 김반장?*

*인부 :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며칠전부터 점점 붉은색 흙이 나오다가 이제는 아예 피처럼 검붉은 흙이 나옵니다*

*소장 : 어허... 이상한 일이구만. 일단 오늘은 정리하고 내일 다시 시작하세*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든 소장의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난다.*

*“그곳은 말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니 목을 끊지 마라. 내가 수로가 날 곳을 따로 알려줄테니 그곳에 수로를 내도록 하라”*

이튿날 공사현장에 가보니 어제 땅을 파던 그 자리는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있고 약간 떨어진 곳에 ‘하얀 서리’가 내려 앉아 있었다.

어제의 꿈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한 현장 소장은 ‘하얀 서리’가 내린 곳으로 수로 방향을 돌려서 공사를 진행했고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야기를 너무나 재밋게 듣고 나니 '말의 목부분'이 어디쯤인지 궁금해졌다.

위치를 여쭙어 보니 서로 자신이 알려준 곳이 맞다고 옥신각신 하신다.

'괜한 것을 물어 본 건가?'

죄송한 마음에 막걸리를 따라 드리며 멧쩍은 웃음을 지어본다

## 10. 하동호

하동호를 보며 걷는 동안 행복하다는 표정을 감출 수가 없다

하동댐이 90년대 중반에 준공되었으니, 나이로만 따지면 이 길은 둘레길의 길 중 가장 짧은 길이 아닐까 싶다. 지리산 둘레길의 대부분은 지리산 마을의 옛길들을 새롭게 잇고 복원한 길이니 말이다. 비록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이 길이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하동호의 모습은 어떤 둘레길 못지 않은 풍광을 자랑한다.

하동호는 하동댐이라고 하고 하동 저수지라고도 부른다.

형태면에서 보면 호수이고, 규모면에서 보면 댐이기도 하고, 설치 목적 면에서 보면 저수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축구장 크기의 8배나 되는 이 큰 인공호수는 장마철에 물의 수위를 조절하여 2개 시군과 9개 면, 60여개 마을의 농사를 책임지는 생명수의 역할도 충실히 해준다.

또한 이 호수로 유입되는 물을 이용하여 ‘소수력발전’ 즉 작은 수력발전을 일으켜 주변 농가의 전력을 안정화 시키는 역할도 해내고 있다.

하동호에서 나본마을로 이어지는 둘레길은, 하동호를 바라보며 걷는 길이다. 수위가 높지 않을 때 하동호를 자세히 관찰하면, 호수 위로 올라온 나뭇가지들을 볼 수 있다. 이는 호수가 생기기 이전, 이 땅에 자라고 있던 수몰된 나무들이다.

비록 호수에 묻혀 죽어있지만, 가지를 수면 밖으로 내밀며 자신의 존재를 애써 드러내려 하는 것 같아 애처로워 보인다.

이 나무들은 하동호가 생기기 전 이곳에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동호 건설로 인해 이곳에 있던 8개 마을이 수몰되었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금성면 갈사리로 이주했다.

맑은 날엔 파란 하늘과 지리산을 온전히 담아내고, 해질녘엔 붉은 석양의 물비늘로 반짝인다. 지리산 자락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기에, 마치 자연 호수처럼 주위의 경관과 어울리는 ‘하동호’

계절이 변함에 따라 점점 지리산을 닮아가며 그 풍광의 깊이를 더해간다.